

특별부록

2016 <귀농운동론 2.0>

2016년 11월 25일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부설
귀농정책연구소

삶의 결단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수십 년 간 줄기만 하던 농촌인구 감소가 주춤하더니만 이제는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귀농한 가구는 약 1만2천 가구인데 귀촌한 가구는 약 30만 가구나 되었다는군요.

통계에 의하면 농사를 지으려한 귀농자들의 85%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를 지려 가지 아니한 귀촌자들의 60%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농촌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으며, 그 중심엔 귀농, 귀촌자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농촌과 함께 새로운 귀농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는 그동안 귀농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와 자립’이라는 주제로 ‘생태귀농학교’를 열어왔으며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귀농운동도 개인적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교육 중심의 운동에서 마을에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방향 전환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귀농운동론2.0」이 나오게 된 것은 시의적절 하고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지금 인류는 삶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회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현대문명은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로, 조직에서 사람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협력과 연대로의 중심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하고 ‘농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인 지역순환 사회를 이뤄내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귀농운동론2.0」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운동의 전략과 그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가치와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 귀농인들 에게 내재화되고 사회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여 갈 것입니다.

이 운동론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귀농운동본부〉 정책연구소장 유정길 선생 외 정책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각 지역의 귀농학교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이 운동론이 잘 활용되어 우리의 귀농운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상임대표 차 홍 도

귀농운동론 2.0을 제안하며

귀농운동론은 2016년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1월 25일 '귀농운동본부 20주년 토론회'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17년 2월 9일 총회에서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귀농운동본부>는 1996년 9월 19일 창립된 이후 20년간 귀농학교를 통해 귀농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귀농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7년 2월까지 현재 본부에서 운영되는 귀농학교는 벌써 74기에 들어섰고, 8회의 소농학교, 9회의 여성귀농학교, 그리고 50여회 진행된 부산귀농학교, 30여회가 넘는 광주귀농학교, 24기가 진행된 경남귀농학교, 8회가 진행된 화천귀농학교, 11회가 넘는 순창농촌생활학교, 14회가 넘는 기독교귀농학교, 32회가 넘는 불교귀농학교, 12회가 넘는 천주교농부학교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에서 거창, 경남 등의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농민단체들이 진행하는 더 많은 귀농귀촌교육을 실시되었고, 여기에 정부 기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40여 곳에서 귀농귀촌 교육과정이 진행될 정도의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텃밭, 도시농부와 관련 교육까지 헤아리면 가히 귀농이 대세라 할 정도의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2015년 1월 20일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각 지자체는 5년마다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지원조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를 보면 그야말로 봇물이 터진 듯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귀농운동을 표방한 귀농운동본부가 이제 단순히 귀농학교라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서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로 본격적인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 '정책' 개발의 중요성으로 인해 <귀농정책연구소>를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귀농운동을 초기에 제안한 단체로서 귀농운동이 한국사회와 세계사적 문명전환의 흐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본 귀농운동론을 제안합니다. 15회 넘는 모임과 토론회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농운동론 2.0>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후 3.0, 4.0, 5.0이 계속 나오길 기대하는 뜻에서입니다. 아무쪼록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면 좋겠고 귀농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의 대안운동을 고민하며 사회적 전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크게 1)귀농운동의 의제와 실천과 2)귀농운동의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귀농운동이 관심 갖고 해나가야 할 활동영역이라고 한다면, 뒤의 내용은 그 활동을 하는 귀농자들이 견지해

야할 생명평화운동가로서의 자세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으며 어떤 점에서는 도덕교과서 같은 내용으로 비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저 개인과 단체의 귀농활동에 깊이 반영하여 만 생명이 평화로운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가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 1) 귀농자들이 정독해 주길 바랍니다.
- 2) 귀농자들 주변사람들과 돌려 읽고 토론을 해주길 바랍니다.
- 3) 각 귀농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넣거나, 후속모임에서 통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 4) 새로운 사회운동과 대안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히도록 배포해 주기 바랍니다.

귀농정책연구소장 유 정 길

| 차례 |

1. 들어가며 - 성찰과 문제의식	198
2. 새로운 귀농운동의 의제와 실천	203
1) 튼튼히 뿌리내리는 자립적 삶과 귀농인 간의 협력 강화	203
2) 개인귀농에서 마을귀농, 지역귀농으로	206
3) 농(農)적 문명으로의 전환과 대안운동의 시도	210
3. 귀농운동의 자세와 대안 사회운동의 방법	220
4. 나가며	229

왜 <귀농운동론 2.0>인가?

1996년 9월 19일에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로선 낯설기조차 했던 '귀농운동'의 가치를 든 지 어느덧 만 이십 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의 정점기를 구가했습니다. 농촌의 급격한 해체와 기층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진 '성장숭배' 시대의 외양은 화려했습니다. 첨단금융과 정보통신산업이 한국 사회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담론도 요란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신이라 할 시장근본주의가 득세하는 장밋빛 발전시대에 귀농운동은 차라리 불온해 보였습니다. <귀농본부>가 제안한 귀농운동은 비현실적이고 낭만적 이상주의이며,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치적 행동과 사회변혁에 소극적이고 궁극적으로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키려는 운동이라는 비판도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귀농운동은 기존 농업, 농촌, 농민운동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애초에 전통적인 계급기반의 운동과는 그 사상과 철학의 궤를 달리하는 운동입니다. 파국으로 향해 치닫는 전 지구적 생태위기는 개별 국가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절멸적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지속가능한 문명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는 우리의 선언은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식의 산물이었습니다. 과거의 농민운동을 포함한 진보운동은 자원무한주의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과 경제발전과 풍요를 지향하는 것이 역사발전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원은 유한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귀농본부>의 운동 방향은 이와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GNP, GDP로 대표되는 직선적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는 더 이상 바른 방향이 아니며 이를 진보라고 규정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구 생명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수탈해 온 성장주의와 물질적 풍요의 추구는 인류를 진보라는 유토피아(Utopia)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위기라는 디스토피아(Dystopia)로 이끌어왔다는 깨달음에서 우리의 전환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생태위기를 가속시킨 산업사회를 흙과 땅에 근거한 농(農)적 문화로 대전환하는 것이 세계사적 문명전환기에 부합하는 바른 방향이라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눈 밝은 사람들과 시장의 가혹한 경쟁에서 내몰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현장교육과 실천의 성과를 더 해지고, 귀농을 궁극적 삶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곳곳에 귀농운동의 '진지'가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마다 귀농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농부로 텃밭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의 대열은 붓물이 터지듯 불어났습니다. 20년이 지난 '귀농운동'은 이제 적지 않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운동은 단순히 농촌으로 내려가거나 농사를 짓는 데 한정되지 않습니다. 귀농운동은 자연친화적인 농적 문화에 기반한 생태적 삶, 존재의 근본으로 귀의하는 존재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중심의 도시문화가 농촌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개인주의 문화가 농촌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방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우리의 성과입니다. 처음 깃발을 든 우리가 더욱 큰 책임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시작 당시엔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지와 공감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의 33개의 귀농귀촌 민간교육기관이 설립되어 3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귀농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귀농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가히 '귀농열풍'이라 할 추세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우려할만한 사태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바와 다르게 귀농을 일확천금을 버는 기회로 부풀리며 허황된 욕망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전업 농군도 파산하고 도시로 내몰리는 마당에, 귀농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선전은 기만입니다. 또한 지역농민이나 귀농자와 협력하며 마을공동체를 만들기보다 개인적인 삶에 한정된 자족적 귀농이나 별장생활에 안주하는 레저형 귀촌의 경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을 오염시키고 도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흐름을 깊이 우려합니다.

귀농운동을 처음 제안한 단체로서 귀농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귀농운동의 방향과 진로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귀농운동 20년을 맞아 <귀농운동론 2.0>을 제안합니다.

<귀농운동론 2.0>은 무엇을 제기하는가?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개인적 삶의 전환입니

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집단을 이루고 일정한 방향과 목적의식을 갖는다면 운동이 됩니다. 사회운동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담은 가치와 방향성(이념성)이 있어야 하며, 실천할 집합적 조직과 체계(조직성)가 있어야 하고, 일회적이 아니라 성과를 축적하고 지속하는 실천(계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귀농본부>는 초기부터 이러한 운동성을 실현하기 위해 귀농교육과 연대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계간지 발간을 통해 생태적 가치의 확산과 담론 형성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귀농운동 20년을 지나면서 운동의 체계를 보다 짜임새 있게 다듬고, 보다 깊고 넓게 전면화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귀농운동론 2.0>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와 사회 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과 미래세대가 더불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입니다. 무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팽창적이고 기계적인 사회제도가 아니라, 수렴적이고 자율적이며 인간적인 사회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중심의 위계적 중앙집중 체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하는 대면적 관계의 확대와 풀뿌리 공동체의 연대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자치의 사회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폐기가 선순환하는 생태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외부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식량자립이 필수적이며, 농업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협력,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 개개인의 깨달음과 영성적 각성을 통해 사회적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자본축적의 논리가 뛰어넘어 사람끼리의 관계와 협력, 배려와 상호부조로 연결되는 사회를 이루는 대강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전환의 방법론은 '사회 페리다임의 중심이동'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시하고 저항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자립과 자치, 협동,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안적 노력을 개인과 집단이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귀농자, 예비 귀농자는 물론 조화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명해주길 기대하며 각자의 다양한 처지에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귀농운동론 2.0〉의 내용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소 교과서적인 원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카오스적인 혼돈과 변화의 물결이 거센 현 시점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을 다시 성찰할 때라고 믿습니다. 올바름이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규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경전이 아니며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현장의 삶과 실천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후 자신이 서있는 지역과 모임에서 이 글을 재료로 삼아 토론하고 각자의 온몸으로 체득한 경험을 더해 변경하고 추가하며 〈귀농운동론 3.0〉으로 거듭 진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 새로운 귀농운동의 의제와 실천

1. 튼튼히 뿌리내리는 자립적 삶과 귀농인 간의 협력 강화

“귀농이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라는 것이지요. 뿌리 뽑힌 삶에서 뿌리내리는 삶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삶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상생 순환의 삶으로,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삶에서 생산적이고 살리는 삶으로, 의존적인 삶에서 자립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은 귀본(歸本)이요, 귀일(歸一)입니다. 농촌, 땅, 자연 그것은 생명불이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근본 자리, 곧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이병철, 《나는 늙은 농부에 미치지 못하네》 중에서)

자립적인 삶, 튼튼한 귀농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생계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해 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돈과 외부생산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자신이 손으로 지역내에서 유기적 삶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를 든다면, 외국의 식량수입이 없어도 굶어죽지 않고 석유를 실은 배가 오지 않아도 얼어 죽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자급과 자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량이라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타인의 노동에 기대어 상품-화폐경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의 삶에 비해 훨씬 자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립적 삶이라고 해서 개인이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자립적인 삶도 협력과 연대라는 유기적 관계망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굳이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자집의 높은 담장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귀농자들에게 믿을 건 결국 '사람'입니다. '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 상호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촘촘히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때 자립적 삶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독립귀농에서 연대귀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개인귀농에서 사회적 귀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개인주의자는 마을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분리되지 말고 마을 주민 속으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상호부조 활동에 적극 참여

생태적인 삶은 더불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계, 두레, 향약 등의 농촌공동체 풍습과 정신은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농촌마저도 개인주의화되었습니다. 귀농운동은 낱알이 해체된 개인들끼리 서로 잇고 연결하는 끈끈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한농연, 농민회, 새마을회, 부녀회, 영농회, 청년회, 작목반, 번영회 등 수많은 단체에 적극 참여하면서 마을문화에 스며들고 동화되며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일손돕기부터 다양한 물품, 공구, 기계를 공유하면서 마을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높여 나가도록 합니다. 지역 토박이로 고향을 지켜 오신 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

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겸손하게 묻고 배우려는 자세로 그분들의 삶과 생활을 존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외지인입니다. 학력이나 도시 경험을 내세워 거만하게 무시하고, 감정에 상처를 입히거나, 체화되지 않은 지식으로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와 지지를 얻고 융화하는 일은 어떤 활동을 하든 기본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육십 대 이상의 농업인은 농촌인구의 61.8%입니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다시피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십 년 뒤에는 귀농인들이 지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마을역사와 지리 경험에 대한 지식과 지혜야말로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 귀농자들 사이의 협력과 지역 네트워크 결성

귀농은 대농이나 기업농보다 소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귀농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합니다. <귀농지원센터>를 매개로 귀농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초기 귀농자들은 집과 땅 매입부터 지역 사람들과 사귀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귀농지원 정보공유, 생활기술이나 농법공유,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역할분담과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여론 형성을 통해 친농업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단위나 광역단위로도 직접 귀농지원 조직을 만들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동운영하면서 귀농자의 정착과 생산물의 유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본부>도 분권화의 원칙에 맞게 광역 단위의 <지역귀농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정부와 단체들과 협력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정착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내실 있는 교육 역량을 키워 지역귀농학교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 도시인, 귀농 희망자와 귀농자 사이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귀농 희망자들은 귀농자의 지원군이며 우호적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귀농교육을 받은 귀농자들이 예비 귀농자들에게 농촌 생활과 농사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을 안내하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상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농생활의 장기적 전망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생협이 농번기에 일손돕기를 하는 것처럼 직접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직거래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 없는 소비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적인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환과 유통과정을 아름답고 기록하게 성화(聖化)시켜나간다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귀농자의 정착을 위해 도시에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해줄 도시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귀농에서 마을귀농, 지역귀농으로

이제까지 귀농운동은 가치지향적인 삶으로의 실존적 결단과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면서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몸과 마음의 현신을 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합니다.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단독귀농에서 마을귀농, 지역귀농으로' 전환해야 하며 귀농지를 정치로 삼아 '마을주민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귀농이라는 용어와 귀촌이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귀농이라는 말은 '농사짓는 일'과 '농촌에서 사는 것', '농민이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귀농은 이미 귀촌의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개인적인 귀농은 '농사짓는 일'에 국한된 것입니다. '농촌에서 사는 것'이란 곧 지역의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마을살이, 지역살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민이 되는 것'은 마음 본바탕에 농(農)적인 가치를 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살이, 마을 살리기로

귀농을 통해 이루려는 마을은 과거의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을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귀농만이 아니라 생활귀농으로' 가야 합니다. 마을에는 농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농사짓는 농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사도 있어야 하고 마을간호사도 있어야 하며 마을선생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 문화, 교육, 생태 분야 등 다종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마을 월급쟁이'와 '마을 자영업자', '마을기업'들도 공생해야 비로소 마을이라는 소유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마을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획, 마케팅, 회계, 식품가공 등 다양한 특기와 경험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서로 모여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마을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살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귀농자를 포함하여 마을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배움의 장을 조직하고, 생활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기술학교'도 필요합니다. 한편 마을 주민이 참여한 '생활문화예술축제' 등, 공동체 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토종종자보존', '생태농부학교', '귀농생활, 귀농사업 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농업포럼>에서 추진하는 <농업회의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 생태공동체마을을 만들고 살아가기

마을을 살리고 만드는 '마을주의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생활물품을 공유하고 상호부조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며 사는 행복한 '생태공동체 마을'을 구상하고 만듭시다. 귀농자와 농민 공동의 생산기반을 만들어 생산, 유통, 판매를 함께 도모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경제공동체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사람들끼리 대안적 삶의 모델을 만드는 '공동체운동'도 대단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한편으로 기존의 마을을 생태공동체로 전환하는 '전환마을운동'도 시도해 보아야 할 활동입니다.

생활귀농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월급형 '농민생활 기본소득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농촌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단위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농기구나 다양한 생활물품을 공유하며, 노인이나 이웃에 전등을 갈거나 수도를 고쳐주는 마을사무소, 마을양로원, 마을의원, 마을식당, 공공임대주택, 마을에너지발전소 등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또한 마을의 공유지를 공동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생태복지란 돈과 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의

존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공동체복지'가 진정한 '생태복지'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토건 중심의 마을개발, 외부 관광객을 위한 마을만들기로는 곤란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을의 내부인(원주민, 귀농인, 출향인)들의 생활과 생존이 보장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자연친화적인 건축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생태계와 잘 조응하고, 생활요소가 자족적으로 갖추어진 생태마을(Ecovillage)이나, 공동주거(Co-Housing)운동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대안모델로서 의미가 큼니다.

▶ 풀뿌리 자치와 지역순환사회를 위한 지역 귀농으로

생태적인 사회는 국가주의와 중앙권력 중심주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중앙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정부와 풀뿌리를 기반으로 한 자립과 자치를 으뜸 원리로 삼습니다. 그것은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 폐기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런 토양에서 참여민주주의가 활력을 얻고 직접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촌귀농'이나 '마을귀농'에 집중하되 기초나 광역단위의 보다 큰 지역사회 전체를 시야에 넣는 귀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완주, 옥천, 괴산 등에서는 지역경제 순환운동으로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 즉 먹거리의 이

동거리(food mileage)를 최소화하며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과 도농상생을 촉진합니다.

영국은 일찍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은 2013년 로컬푸드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법을 만들었고, 일본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지산지소(地産地消)'로 일컫는 로컬푸드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역순환사회는 농산물뿐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 폐기물까지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 및 광역 차원의 '지역순환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순환사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의 사업 분야와 마을만들기,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를 연계하고 융합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 지원 체계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나 '유기농 로컬푸드 농민시장', 지역 농민은행이 발행하는 '귀농(농민) 지역화폐' 운동 등도 대단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3. 농(農)적 문명으로의 전환과 대안운동의 시도

귀농운동은 지속불가능한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운동이며, 농적 문명을 토대로 한 대안사회운동입니다. 그 방도는 '틈 전략'이며 '중심이동 전략'입니다. 현재의 주류 사회 속에 남아 있는 수많은 대안의 틈을 발견

하고 그곳에 씨앗들을 끼워 넣어 받아시키고 점차 깊이 스며들어 틈을 확장시켜 사회의 중심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안적 활동들이 곳곳에서 시도되어야 합니다.

▶ 농민 기본소득 운동

'농민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4% 대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되는 독일, 스위스 등 선진 농업국의 직불금 지원 수준에 버금가는 실질적 농업소득 보전책이 필요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는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농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공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8~50세의 청장년 10만명에게 5년 이상 15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청년 공익영농요원제'를 특정한 지역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영세농 기초생활연금제'와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영세농 기초생활연금제'는 소득인정액 하위 30%의 영세농에게,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는 65세 이상 고령농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일종의 노인연금제라면 이는 '농민연금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는 모든 농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말 기준 약 275만 명의 농민(총 농가인구)에게 월 50만 원씩 무조건, 무기한 지급한다면 연간 예산은 16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 농민 지역화폐 (또는 농민금융)운동

귀농인도 돈과 금융이 필요합니다. 유명무실한 농협의 역할을 대신할 '제2의 농민은행'이 필요합니다. 농가부채가 농업소득보다 30배 이상, 농가소득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하는 추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빚을 내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는 셈입니다. 지속될 수 없는 삶입니다. 농가 부채라는 구조악을 해결하려면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농촌형 주빌리은행(Jubilee bank)'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농민의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려 세운 <라이파이젠 농민은행>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지역화폐(local currency, local money, LETS) 등을 발행 운영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귀농인들이 주도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이나 벼룩시장(flea market), 그리고 지역의 농민들이 만나고 어울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을 활발하게 운영한다면 돈이 없이도 서로의 능력과 기술을 교환하며 살 만한 농촌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지 신탁(트러스트)운동

농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이 넘는 규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을 육성하려는 목표 때문입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보존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줄어들고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사실상 복원이 어렵습니다. 적정한 규모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인구, 식생활 변화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농지보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을 시민들이 돈을 모아 구입하여 보존해온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처럼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부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 트러스트운동'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곡식을 생산하며 녹색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배출하며 환경을 정화시키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지는 국토경관과 생물다양성의 유지, 물 관리 및 홍수예방, 대기질 개선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거대한 잠재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 도시농업, 도시텃밭운동

도시텃밭운동은 <귀농본부>가 <텃밭보급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대한 유행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공터나 옥상 심지어 베란다를 활용하여 텃밭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메마른 도시의 회색공간을 따뜻한 초록의 공간으로 만들며 도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텃밭은 도시민들이 삭막한 시멘트를 벗어나 흙과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를 키우는 토양이기도 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일하면서 가족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웃들과 발일을 하면서 대화하며 지역공동체에 생기를 돌구는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농업은 보다 더 다

양하게 진화되길 기대합니다.

▶ 적정기술, 중간기술운동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거대기술(super technology)이 아닌 효율적이면서도 소박하고 값싼 민중기술로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을 제안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값싸고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대안기술(alternative technology)로도 불립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는 '전환기술'입니다.

슈마허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민중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있다면 첨단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리산의 <대안기술센터>나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햇빛온풍기, 건조기, 온수기, 바이오디젤, 풍력 발전, 태양열 난방, 자전거 발전기, 빗물 사용, 난로 및 오븐의 대체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설비를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퍼머컬처 디자인' 등 순환 농업 기술과 스트로베일 하우스, 흙부대 건축과 같은 생태건축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단체도 많아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해외개발협력기구들이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데 중간기술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이 개발, 보급될 것입니다. 귀농자들도 중간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토종씨앗 보존운동

콩은 원산지가 한반도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북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콩(대두)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콩을 비롯하여 토종 종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채종하여 씨앗을 심기보다 종묘회사에서 상품화된 종자를 구매해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씨앗은 대부분 한 해만 열매 맺고 죽어버리는 불임 씨앗입니다. 더욱이 다수의 한국 종묘회사가 몬산토, 카길, 신젠타 등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넘어가서 토종종자조차 비싼 로열티를 물고 역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수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씨앗까지도 '종자 제국주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가에서 직접 채종하여 토종씨앗을 선발하고 육종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홍살림 토종연구소>와 토종종자모임 <씨드림> 등에서 토종종자의 보존과 더불어 종다양성 확대라는 생태농업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활기술 학교

대다수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사는 생활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는 기술과 친구를 이기고 살아남는 기술', 아니면 '취직을 잘 하는 기술이나 자본의 노예로 사는 기술'만 열심히 터득했을 뿐입니다.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자립하는 기술을 배운 적도 가르쳐 주는 곳도 없습니다.

'생활기술'은 자립적 삶을 일구는 도구이자 호혜적 삶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사짓는 법, 집짓는 법, 음식 조리하는 법, 옷 만드는 법, 가구를 만들고 짜는 법, 에너지를 자립하는 법, 술을 빚는 법부터 장사하는 법,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법, 노인과 장애인을 보살피는 법,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설계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먹고사는 데 필요한 다종다양한 '생활기술'을 손쉽게 배우고 교류하는 거점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기술학교'에서 한두 해 동안 배운 사람들은 '지역사회 전문가'와 '생활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과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먹고 사는 두려움과 불안'도 해소될 것입니다.

▶ 육아와 교육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명의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이 학교가 되고 주민이 교사가 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고안해야 합니다.

귀농 결심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제도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선택할 대안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농이야말로 자연을 배우고 생명을 아끼는 가치관을 키우는 창조적인 대안교육의 잠재력으로 가득한 세계로의 이동이기도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마을, 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모든 곳이 학교입니다. 또한 교육은 평생교육이되어야 합니다. 폐교된 학교를 살리고, 공동육아, 산촌유학, 대안학교, 지역도서관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교육센터(communitry education center)'를 설립한다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어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학습하고 주민들이 교류하는 명실상부한 '마을공동체학교'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체 복지운동

오늘날 복지사업은 대부분 전문 복지사들에 의한 시설복지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수동적 수혜자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복지 역시 마을공동체에 뿌리와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전달체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서로가 돕고 보살피고 지원하는 '공동체복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끼리 보살피며 주고 함께 나누며, 모두 내일처럼 돕고 상호부조하는 마을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일상화되면 굳이 복지라는 이름조차 붙일 필요도 없이 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됩니다.

농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며 생산적 농촌복지의 수행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립형 농촌복지 실현'을 표방하며 활동하는 전남 영광 묘량면의 <여민동락공동체>에서 노인들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의 보살핌을 실현하는 공동체복지 활동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 농부학교와 대학생 생태농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정규직을 늘리는 고용은 쉽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자본의 비정규직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귀농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일본은 농업부문에 젊은이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2012년부터 '청년취농자 지원급여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취농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45세 이하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을 포함하여 총 7년에 걸쳐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연간 150만 엔(약 2,100만 원)이며, 급여를 받은 기간의 1.5배(최소 2년)기간 동안 독립자영농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의회도 2015년부터 40세 이하의 농업을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젊은 농업인 직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과거 대학생들의 농촌활동을 생태농활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제껏 도시에서 내려보내는 농부학교, 귀농학교가 아니라 지역을 터전으로 도시민을 불러들이며 인근의 농촌으로 귀농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실직 중인 청년이나 은퇴자들을 위해 100일 농부학교 등을 운영하고, 기업이나 노조 등에서 귀농에 관심을 유도하여 삶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 명상 영성운동

귀농운동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 가치관의 전환을 중요시하는 문명전환의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성과 깨달음, 마음의 평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농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속도중심의 도시를 포기하고 느리고 천천히 살며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농촌의 삶은 자연의 이치와 순환에 어우러져야 합니다. 몸은 농촌에 있으면

서 마음은 경쟁과 효율, 빨리빨리의 도시적 속도지향의 삶을 산다면 농촌에서 오래 건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농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세속적 출세보다는 정신적인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지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적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오롯이 농적 문화에 적응하고 대안적 삶을 채득하게 하는데 명상이나 영성, 정신적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활동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명상과 영성적 활동을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도 농업은 아주 좋은 생산기반이자 마음밭을 일구는 터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껏 사회운동은 대체로 자신의 '밖'을 변화시키는 활동이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오직 사회와 구조를 비롯한 '내 밖이 문제'라는 생각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오랜동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 육체운동을 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마음운동, 즉 마음밭을 가꾸는 수행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을의 개성이 강한 귀농자들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서로 상처받지 않고 형제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공부와 정신적 훈련은 마을공동체를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태적 사고, 관계망적 사고, 사회적 책임

귀농은 생태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생태적 귀농이란 친환경적인 농사를 기본으로 삼되 공동체적 농업, 생명을 가꾸고 살리는 농업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귀농운동은 자연친화적, 공동체친화적, 순환적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생태주의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관계되어 있다.’ 라고 믿는 사고를 말합니다. ‘서로 얽혀 관계 맺지 않은 것은 없다.’ 라는 것이지요. 인드라의 그물망처럼 하나하나의 구슬에 구슬망 전체가 다 비치는 원리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먼지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 있으며, 낱알 하나가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깨우침입니다.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나의 일부분입니다.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일, 이웃의 고통과 가난, 분쟁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결국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나도 책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도 자신입니다. 이렇듯 생태적 가치 지향은 모든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발견합니다. 초기 독일 녹색당의 네 가지 강령 중에 ‘사회적 책임’이 명시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 죽임살이에서 살림살이로 나아가 모심으로

경쟁사회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협동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고 일등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종교 또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이용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패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자신은 승자의 경험보다 패배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좌절과 패배는 정신적 기(氣)의 죽임입니다. 정신적인 죽임이 누적되어 임계치를 넘어서면 결국 물리적 죽임이 됩니다. 자살자가 세계 1위이고 우울증, 돌연사, 과로사가 많은 것은 이러한 정신적 죽임이 축적된 결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서로를 죽이는 죽임의 문화가 지배합니다. ‘죽임살이’입니다. 이렇게 죽임살이를 ‘살림살이’로 바꾸는 모든 운동이 ‘살림운동’이며 ‘생명운동’입니다.

살림의 문화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외부를 살리는 일이 곧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해와 피해를 감내하고서도 이웃과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손해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죽음으로써 살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인거지요. 피해를 보지만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평등은 50을 주고 50을 받는 것이지만, 모심이란 상대가 30을 준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70~90을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며, 살림이며 모심입니다. 살림꾼은 그야말로 마이다스 손처럼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살려지게’ 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평등에 대한 집착은 미묘한 불평등을 못 견디게 만들어 단체에 불화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은 평등으로 완성되지 않고 오히려 섬김과 모심

을 통해 완성됩니다.

▶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다양성의 사고로

이제까지의 사회운동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자신의 진영이 무조건적인 선이며 같은 편에 서 있는 자 모두 선의를 가진 세력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은 '저들, 그들'로 간주되면서 적으로 타자화시키고 나쁜 세력으로 단정합니다. 이른바 진영론입니다. 상대방인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분노를 동력으로 적개심을 엔진으로 삼아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방식에 익숙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영론은 상황을 항상 적(敵)과 아(我)가 싸우는 전투로 인식합니다. 전투 또는 전쟁은 평상상태가 아니라 비상(非常)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리편이나 네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만 존재할 뿐, 중간의 접이지대를 용인하지 않고, 다양성과 다른 견해에 대한 관용성과 수용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이 상황은 누가 '우리편' 인지를 구획하는 '전선' 긋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를 제압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투시기에 타협과 절충은 곧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성'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 자신을 비롯하여 적이라고 규정한 사람 모두 절대적인 선과 악,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조건 안에서 분별하고 단정하는 생각(관념)일 뿐입니다. 현실 사회의 관계는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해세력 사이의 타협과 절충이 중요합니다.

흑백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의 흑(黑)과 100%의 백(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진하고 흐린 명도의 차이가 있는 '회색'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흑백이 아니라 총천연색 어울림이 이 세계의 빛깔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보수세력, 수구세력, 토호세력이라고 단정했던 사람도 다른 측면에서 집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 목표지향적 자세에서 관계지향적, 과정지향적 활동으로

목표지향적 활동에 집착하면 과정이 생략되거나 무시됩니다. 과도한 성과지상주의로 인해 일을 잘 끝내고도 인간관계는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실패한 활동이라 하겠습니까. 일의 실질적인 성패는 목표 달성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일의 삼분의 일이 완수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은 못해도 과정 속에서 신뢰가 쌓여 즐겁고,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면 삼분의 이를 이룬 것입니다. 목표에 집착하면 속도에 연연하게 되고, 빨리 서두르는 만큼 과정과 관계가 손상됩니다.

목표를 두되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되 속도에 연연하지 않으며 과정을 꼭꼭 눌러가며 정성들이고, 관계에 섬세히 공을 들이는 자세가 으뜸 가치입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어 목표에 미치지 못해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즐거움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일입니다. 일은 서두른 만큼 이후 해악으로 돌아오고, 관계가 거친 만큼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 문제제기의 관점에서 해결의 관점으로

사회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연고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내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시간과 방법을 찾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의식이 함께 하는 사람을 향한 공격이나 비난으로 전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해결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극복하려는 자세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탁월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과 공동체에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적 직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실제 예리하지 않아도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말과 생각'이지만, 해결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을 믿습니다. 손님은 언제나 품평하고 평론하고 툭툭거리지만, 주인은 해결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구석에서 공격하다 다시 구석으로 도망가는 사람보다 중심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문제를 풀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가는 자리에서 항상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문제제기와 비판만 하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미안해하고 사과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은 자신

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통합하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도덕적 권위'의 영향력이 더 큼니다.

▶ 저항 중심의 운동에서 대안과 건설 중심의 활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은 대체로 저항과 반대, 감시와 비판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상대를 악마화 할수록 쉽게 증오를 조직화하며 우리 편을 결집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투쟁의지를 고양시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상대를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상대를 단순화시켜 희화화하는 데 만족합니다. 인간 행동의 이유와 배경은 단순하지 않은데도 게으른 현실분석으로 스스로 실패하고 맙니다. '만들고 창조하는 에너지' 보다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열정'이 더 크고 이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과 희망을 만드는 운동(Positive)' 보다 '반대와 저항하는 운동(Negative)'에서 정체성을 찾는 데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외에는 무능력한', '내용 없이 과격한', '책임지지 않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과제를 발굴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대안제시 능력,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전환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은 체계를 무너트리는 파괴력이 있지만 건설하고 창조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쉬 달아오르며 쉬 식어버리고 '미워하면 다행 된다.'고 하는 말처럼 승화되지 않은 증오는 자신이 극복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극복 대상이 되어버리는 역설을 낳습니다. 사실 분노와 증오는 상대를 파괴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를 통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일은 달라지고 변합니다. 사람이 일을 만들지만 또한 일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동안 사회운동은 언제나 내 밖을 변화시키고 내 밖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귀농운동으로 대표되는 대안운동은 '밖을 변화시키는 운동과 안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과 개인의 수행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일이 함께 소중합니다.

사람은 자기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결의수준과 경험만큼 활동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고 뛰고 운동하듯 사람의 마음도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농운동은 언제나 마음발을 잘 일구는 '마음살림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요한 물일수록 투명하게 바닥이 보이듯이 산란한 마음으로는 명징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사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귀농자들은 물질적 풍요를 내려놓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청빈하고 주체적인 가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풍요를 선택한 삶입니다. 정신능력의 확장을 위해 마음 닦기와 수행을 통해 영성과 깨달음의 영역을 고양시키는 것은 바로 천도교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도리이며, 문명 전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가기에 알맞은 인간형이 되려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감사와 고마움, 기쁨과 행복이 귀농운동의 동력

끔찍할 수 없는 암울한 질곡의 상황에서 중요과 적개심은, 처절한 저항과 비타협적 행동으로 돌파하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력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폭력적 방식으로 비폭력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말처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목표를 이룬 미래의 사회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대안적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의 동력은 '감사와 행복'입니다. 약자들의 희생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마음은 곧 사랑과 자비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하지도 못한다는 말은 가슴 깊이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분노의 마음은 소중하지만 오래 지니고 있으면 스스로 피폐해집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동력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질곡의 일점을 돌파해야 했던 시기에는 목숨까지 던지는 고뇌에 찬 소수의 결단과 헌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경받으려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다른 결단'이라는 관념이 승화되지 않으면 이후에 보상의식을 갖게하여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오래하려면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부러워 따라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하면 운동은 운동이 아니게 됩니다. 재미있으면 일은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놀이이자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시작했지만 운동이 사라지는 경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참고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참을 것도 없어야 오래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는 말

이 있습니다. 부럽다는 말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결핍과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야 오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의 중심이며 주체’, ‘모든 일이 내 일’ 이라고 생각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 에너지가 발신되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4 나가며

귀농운동은 자율적 존재가 되기 위한 자기 수행운동과 탈근대적 농업문명의 모색과 탐구를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근대문명은 법과 제도 등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사회진보를 추구해왔던 역사입니다. 새로운 귀농운동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변화의 중심에 나와 나의 마음을 설정합니다. 나는 천지만물과 유기적 관계 속에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변화는 나에게서 비롯되고 나의 변화는 내 의식과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데서 비롯한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변화가 이웃의 변화로, 이웃의 변화가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변화로 동심원적 파장으로 퍼져 나가 무한 변화로 이어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타인,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는 사유에서 벗어나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는 전일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은 만인과 만물에 연결되어 있으며 여럿 가운데 하나로서 공평무사한 존재인 공(公)이자, 공동체적 삶의 주인으로서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共)이며, 끝없는 수행과 다스림을 통해 마침내 에고를 넘어서는 공(空)이 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일구어야 할 문명의 첫 번째 과제는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농민운동이

해체되어 가는 마을공동체를 지키고 복원하고자 주력하였다면, 우리의 귀농 운동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창조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중에서 살려야 할 것은 살리되, 회복하기 어려운 것, 소멸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지혜를 찾는 일입니다. 과거와 '단절하면서 연속하는 운동'입니다.

세상은 생각만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낡은 체제는 우리 몸 속속들이 장관의 때처럼 들러붙어 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야 할 자신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섬세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강이 물 한 방울에서 시작하듯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느린 변화와 비약의 불연속이 반복되면서 진화합니다. 현실은 흐르는 물이 그렇듯 막히면 에둘러 가고 때로는 급물살로 흐르고 때로는 머물지만 중국에는 큰 바다로 흘러가는 긴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새로운 귀농운동은 다종다양한 대안적 시도와 실험적 모색을 소중히 여깁니다. 도시와 농촌의 마을만들기운동, 청년운동, 공유경제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국제협력운동 등 귀농운동과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진지하고, 사심 없고, 순수한 노력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현실의 운동과 손을 잡고, 다양한 문명 전환적 실험과 연결하고 접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일구는 여러 물줄기와 합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립적 삶과 호혜경제와 선물경제가 공존하는 거룩한 시장(神市)이 천하만물을 화육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공동체적 손노동을 회복하고 농산물과 생활기물을 주고받는 도농 직거래를 실현함으로써 현대의 신시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폭력적 근대화를 경험한 노인세대와 새

로운 문명을 이끌고 지속시킬 미래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함께 품어 안고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이키교도들이 하는 세 바퀴의 의사소통, 우리 전통의 화백회의, 불교의 전통적인 승가의 갈마(羯磨)제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추천제, 미래세대와 못생명을 주제로 참여하게 하는 생태민주주의, 지역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과도 맞닿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귀농운동은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생태적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한 행동이자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농운동은 근대가 강요하는 죽임의 문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반조하는 명상과 수행의 문화(마음살림 문화)가 귀농운동 곳곳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귀농자들은 앞으로 십 년만 지나면 그냥 농민이 됩니다. 한국 농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됩니다. 머지않아 수많은 귀농자들이 물려올 시절이 올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밝은 눈으로 길을 내고 닦아 풀어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기틀을 새로 짚시다. (궐)

귀농운동론 집필일지와 집필진

제1차 토론회 : 귀농운동 20년의 의의를 돌아본다

- 일시 : 2016년 7월 18일 (화) 오후 3시 - 6시 | ● 장소 : 서울 남산 문학의 집
- 발제 : 귀농운동 20년의 시작과 소회 | 이병철 (귀농본부 초대 상임대표)
 창립선언문을 통해본 귀농운동의 사상과 시대인식 | 김용우 (한살림연합 자문위원)
 자립마을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 전희식 (귀농정책연구소 사상분과 위원장)

제2차 토론회 : 귀농본부 20년의 평가와 과제

- 일시 : 2016년 8월 26일 (금) 오후 2시 - 5시 | ● 장소 : 한국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
- 발제 : 귀농운동 20년에 대한 간략한 평가 | 백승우 (귀농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귀농운동본부 20년 역사의 성과와 과제 | 안철환 (전 텃밭보급소 대표)

제3차 토론회 : 귀농운동의 새로운 방향 1

- 일시 : 2016년 9월 19일 (월) 오후 2시 - 5시 | ● 장소 : 한국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
- 발제 : '귀농운동본부, 다시 새로운 발걸음' | 차홍도 (귀농본부 대표)
- 토론 : 전희식, 김용우, 박기윤, 백승우

제4차 토론회 : 귀농운동의 새로운 방향 2

- 일시 : 10월 19일 | ● 장소 : 춘천 두레생협
- 내용 : 귀농운동론의 각 분야별 초안작성 검토 토론

제5차 토론회 : 귀농운동본부 20주년 기념 포럼 : 귀농운동 20년과 제2운동론

- 일시 : 2016년 11월 25일 오후3시 - 5시 | ● 장소 : 선릉역 HJ컨벤션센터 5층
- 발표 : 유정길 (귀농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박종관 (상주 농부, 전 귀농본부 이사)

제6차 토론회 : 귀농운동론 수정모임

- 일시 : 12월 12일 오후 3시 - 5시 | ● 장소 : 서울역 회의실
- 내용 : 귀농운동론 수정 및 정책연구소 사업방향

발표 : 2017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공식발표

- 일시 : 2017년 2월 9일 (목) 오후 3시 - 5시 | ● 장소 :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집필책임 유정길 (귀농정책연구소소장)

집필자 : 차홍도 | 전희식 | 백승우 | 김용우 | 정기석 | 박기윤 | 이진천

교정교열 : 홍문국 (출판위원장, 《귀농통문》편집장)